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

공 약 명	오색케이블카 설치			관리번호	2-21
추진부서	삭도추진단	담 당 자	함석영	전화번호	7496
협조부서					
실천목표	임기 내 완료		추진상황	이행 후 계속 추진	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~2026년
- 사업량 : 삭도 1개소 설치 및 운영
- 총사업비 : 117,200백만 원(도비 22,400, 군비 94,800)
- 주요내용 : 삭도 연장 3.3km, 중간지주 6개소, 상·하부정류장 각 1개소, 산책로 등

□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총사업비	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						
		기투자 (‘15~’21)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임기이후
계	117,200	28,870	1,360	1,800	30,000	20,000	35,170	0
국 비	0	-	-	-	-	-	-	-
도 비	22,400	4,000	-	-	10,000	4,000	4,400	-
시군비	94,800	24,870	1,360	1,800	20,000	16,000	30,770	-
기 타	0	-	-	-	-	-	-	-

□ 추진실적(성과)

《기 추진실적 : '24. 4분기 기준 누계》

- 국립공원내 삭도설치(내륙형) 시범사업 선정(환경부) : '15.8.
-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완료 : '23.2.27. ※ 협의 개시 : '15.12.
-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개별법(4개분야) 인·허가 완료 : '23.3~10.
-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 개최 : '23.11.20. * 국무총리 참석
- 오색삭도 설치공사 입찰공고(조달청) : '24.3.21.
- 궤도사업 허가(양양군) : '24.4.16.
- 오색삭도 설치공사 입찰희망업체 적격성 심사(조달청) : '24.4.23.
- 오색삭도 설치공사 개찰 및 종합평가(조달청) : '24.5.2~31.

-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공사(토목, 건축 등 5개 분야) 착공 : '24.6.24.
- 상부정류장 임시상전 인입 시설공사(전기,통신) 계약체결 : '24.7.26.
- 오색삭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: '24.8.17.
- 오색삭도 현장사무실 등 가설공사 완료('24.10.5.)
- 가설삭도 공사전 설계검토 및 사업부지 현황측량(11월)

《2025년 3월 현재》

- 투자액('25년) : 200억 원(도비 40, 군비 160)
- 주요추진 사항
 -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관련 도로관리청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
 - * 진입도로 기하구조 설계보완 및 관리청 허가, 승인 신청
 - 가설삭도 설계안전도 검사 신청관련 설계도서 검토 보완
 - 자재운반용 임시헬기장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

《현재까지 목표달성》

주요사업	목표치	추진상황 (완료/추진중/미착수)	추진내용
삭도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	<2023> - 환경영향평가 협의 - 개별법 인·허가	완료	-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: '23. 2월 - 개별법 인허가 완료 : '23. 10월
설악산 오색삭도 공사 추진	<2024> - 계약심사 및 입찰 등 - 삭도시설 공사 착수 - 현장사무실 설치 - 가설삭도 및 지주 공사 준비, 현황조사 추진	완료	-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: '24. 7월 - 감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: '24. 7월 - 현장사무소 가설공사 완료 : '24. 10월 - 상부정류장 임시상전 인입 완료 : '24. 10월 - 가설삭도 설계검토 및 측량 : '24. 10월 - 진입도로 개설 협의 : '24. 12월 - 사업부지 수목조사 추진 : '24. 12월
	<2025> -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- 가설삭도 설치 - 희귀식물 이식 - 정류장 기초공사	추진중	- 진입도로 개설관련 관리청 허가신청 : 2월 - 가설삭도 설계보완 추진 : 2월~ - 지주설치 부지 측량 및 현황조사 : 2월~

□ 도민소통 실적

계	주민간담회, 공청회 등	만족도 조사	민간전문가 자문	언론, 방송	기타
5				5	

□ 향후계획

- (2025년) 가설삭도 설치 및 상·하부 정류장 기초공사 추진
- (2026년) 본 지주, 상하부정류장, 곤돌라 설비 등 완료 및 운행개시

<기대효과>

- 정부 최초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설악산의 자연생태 보전, 사회·신체적 약자의 문화향유권 확대